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미래산업인재 키운다 학과별 홈커밍데이 성료



2023 Winter

단국대학교 소식지
Vol. 61

i 단국은 세계로 도약하는 선도민족사학, 단국대의 의지를 형상화하였고 다양한 대학 소식을 전함에 있어 지식정보화를 추구하는 대학지성의 참모습 *intelligence*, 대학문화를 총괄적으로 제공해 주는 종합정보의 기능 *information*, 구성원과 동문 모두가 단국의 율타리에션 '하나'라는 일체감을 느낄수 있는 독자성과 동일성 *identity*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FOCUS 단국

- 04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미래산업인재 키운다
- 05 융합반도체공학전공·파운드리공학과 신설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 선정
- 06 자율주행차·디지털 포렌식 시가반 영상인식시스템
기술이전 성공
- 07 바이오헬스케어 혁신공유대학사업 본궤도 올라
- 08 동물자원학전공 BK21사업팀, 5년간 SCI급 논문 363편 발표
교수 창업도 꽃 피워
- 09 조직재생공학연구원, 국제적 연구성과 이어져
공공의료분야 국가시험 100% 합격, 교수진 수상도 잇따라
- 10 언론에 비친 단국



발행일 2023. 2 발행인 김수복 발행처 단국대학교 미디어콘텐츠홍보처 홍보팀
죽전캠퍼스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031)8005-2031~3
천안캠퍼스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041)550-1060~1 디자인 호진커뮤니케이션즈

TODAY 투데이 DKU

- 12 3년만에 열린 총동창회 송년의 밤
- 13 포스트 코로나 홈커밍데이 스타트
- 14 3년만에 재개된 해외봉사 활동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전해진 '진리·봉사'
- 16 단국대병원 210만 총남도민 책임지는 '지역암센터' 선정
- 17 박재형·이승기 교수, 반도체공정분야 기술이전
이병선 교수팀, 이차전지 수명과 성능 높인 음극재 개발
한문교육연구소, 고문헌 속 한자 90% 인식 인공지능 개발
- 18 2027하계U대회 국내유치, 천안캠퍼스 등 충청권서 치러져
- 19 2022년 스포츠 결산, 단국 스포츠 날아오르다

PEOPLE 단국, 단국인

- 20 김수복 총장 스페인·헝가리 자매대학 방문
- 22 이정환 교수,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회원 선출
김미지 교수, '김윤식학술상' 첫 수상자에 선정
- 23 한정근 교수, 척수손상 재활 앞당겨 '의료기기산업대상' 대상 수상
분쟁해결연구센터,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연구기관' 재선정
- 24 재학생홍보콘텐츠폰공모전 성료, "학생시선으로 표현된 아름다운 대학"
- 25 세무사 13명·CPA 7명·관세사 6명 합격
박서연 양 "해외전시회서 증기제품 110만 달러 수출"

DONATION 희망단국

- 26 발전기금 소식
- 28 기부자 명단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미래산업인재 키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로의 변화는 현실세계의 모든 것을 탈바꿈시키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하며 기술발전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졌고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바이오헬스 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MZ세대라고 칭해지는 새로운 세대는 '가치 소비'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는 세대로 변화했고 소비 시장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도 대변혁을 가져왔다.

급속하게 진화하는 변화에서 우리의 미래를 지탱해 줄 성장 동력은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단국대는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분야 미래 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로 답했다. 학부·대학원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했고 미래차·반도체·지식재산분야 '신산업·첨단 산업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미래 신산업에 필수적인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바이오 분야 역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바이오헬스분야 혁신공유대학 주관대학으로 선정된 단국대는 85여 개의 바이오융합강좌를 신설했고 벌써 6,000여 명의 학생들이 관련 강좌를 이수했으며 1차년도 평가에서 전국 56개 참여대학 가운데 1위에 선정됐다. 공공·보건과학대학은 2022년도 공공의료분야 국가시험에 100%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고 동물자원학분야와 조직재생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여줬다.

융합반도체공학전공 및 파운드리공학과 신설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 선정



단국대는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할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첨단IT 디바이스 분야 등에서 반도체의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분석 아래 학부·대학원에 반도체학과를 설립하고 관련 분야 인재육성에 본격 나선다. 융합반도체공학전공(80명)을 신설해 반도체 소자·재료·공정·회로설계·신뢰성평가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대학원에도 시스템반도체 제조과정을 배우는 파운드리공학과를 신설해 지난 9월부터 수업을 개시했다. 전자전기공학부 등 5개 학과 교수들이 학제간 강의로 전력, 소재, 부품, 장비 등 반도체 제작의 전반을 가르친다. 2023년부터는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임직원을 4년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초빙해 미래 반도체 분야의 부가치 창출을 위해 강의를 개설하고 공동연구에도 나설 예정이다. 재학생들은 시스템반도체의 설계를 포함해 반도체 불량분석·품질관리 등 단국대가 수주한 3개의 국책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이론과 실무 역량을 배양할 수 있게 됐다.

단국대 기계공학과는 2022년부터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 등의 중대형 정부과제를 수주하며 미래형 자동차의 개발과 제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디지털 제조장비와 AI협업 로봇분야 연구과제 수주에 이어 친환경자동차, 스마트센서분야까지 포함해 학부생 및 매년 30여 명의 석·박사를 신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교육역량을 갖췄다. 특히 조구영 교수를 비롯한 14명의 교수와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동력장비, 시뮬레이터, 첨단 배터리 등 관련 장비를 구축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실무중심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AI 기반 영상인식 시스템 기술' 계약체결 장면
(왼쪽부터 ㈜카탈로닉스 석민 대표, 김대근 교수, 박재춘 산학협력단장)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 디지털 포렌식 기술' 계약체결 장면
(왼쪽부터 한국자동차연구원 김용은 책임연구원, 박재춘 산학협력단장, 우사무엘 교수, ㈜씨피시스 박준일 대표)

'자율주행차·디지털 포렌식 AI기반 영상인식시스템' 기술이전 성공

단국대는 지난 10월 디지털 포렌식 및 AI 기반 영상인식 기술에 대한 2억 원 규모의 중대형 융복합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전 기술은 우사무엘 교수(소프트웨어학과)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김대근 교수(기계공학과)의 'AI 기반 영상인식 시스템 기술'로 ㈜씨피시스와 ㈜카탈로닉스에 각각 1억 원에 이전됐다.

특히 우사무엘 교수가 ㈜씨피시스에 이전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단국대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손잡고 진행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브릿지플러스사업)'의 융복합 기술사업화 과제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정보보안기업 ㈜씨피시스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 보험사에 사고 정보를 제공하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탈로닉스는 첨단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객체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 보안, 국방, 산림,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 신사업을 추진중이다.

박재춘 죽전캠퍼스 산학협력단장은 "단국대 브릿지플러스 사업을 통해 산·학·연 간 융복합 기술 매칭을 주도하는 허브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국대는 지난해 22억여 원을 상회하는 기술이전 수입을 달성했다.



바이오헬스케어 혁신공유대학사업 본궤도 올라



단국대의 바이오헬스케어 인재양성도 본 궤도에 올랐다. 의예·치의예·간호·약학·생명자원·보건분야 등 전통적인 BT분야의 성과도 컸지만 혁신공유대학 바이오헬스케어 권소시업 주관대학으로 1년차 성과평가에서 사업 참여 56개 대학 중 1위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혁신공유대학사업은 정부가 2026년까지 5천억 원을 투입, 반도체·바이오헬스케어 등 8대 신산업에서 국가수준의 인재 10만 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대학 간, 대학·기업 간 협업·공유·개방을 통해 혁신을 주도한다는 청사진이다.

단국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권소시업 대학들이 집중이수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끌어냈고 '바이오헬스 진로설계, 바이오헬스 인체신비, 웨어러블 캡스톤디자인, 소프트웨어형 디지털치료제' 등 바이오분야와 이공계분야가 융합된 85개의 바이오융합강좌를 신설했다. 대학에서는 실감형 수업환경 구축 등 첨단 강의환경 조성에도 앞장섰다. 홀로그램 기반의 텔레프레즌스 시스템과 제작실을 구축했고 교육공통플랫폼을 설치해 벌써 6천여 학생들이 관련 강좌를 이수했다. 단국대는 '바이오 교육은 단국대!'라는 위상 정립과 함께 2026년까지 2만 5천여 명의 바이오인재를 양성한다는 포부다.



동물자원학전공 BK21사업팀, 5년간 SCI급 논문 363편 발표!



단국대 생명자원학부 동물자원학전공의 「두뇌한국(BK) 21사업팀」(미래형 축산환경을 위한 생체시스템 구축 및 활용교육 연구팀)이 뛰어난 연구 성과와 우수인재 양성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사업팀의 1인당 논문 수는 미국 코넬대, 버지니아공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등 미국 동물과학분야 상위 5개 대학의 다섯 배 수준을 보였다(2015-2019 Scopus Search).

아시아 최고 수준의 산학연계형 동물자원 교육연구 메카 구축을 위해 설립된 동 사업팀은 4단계 사업에서 7년간(2020~2027년) 19억 6천 9백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배양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학협력 활성화 및 유관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석·박사생 52명이 참여한 SCI급 논문은 무려 304편에 달하고 같은 기간 사업팀 소속 교수들도 SCI급 논문 363편을 발표했다. 특히 김인호·강대경·김현범 교수의 논문 인용지수와 논문 수는 타 대학 유사 전공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학기술원 정희원인 김인호 교수(사업팀장, 생명공학대학 학장)는 최근 5년간 SCI급 논문을 258편 발표했고 한국연구재단 책임전문위원, 캐나다·일본 등 국제 축산학회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 양돈대상을 비롯해 각종 학술상과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업팀은 동물사료영양학, 동물자원 미생물학 등의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산업체 또는 농장 현장체험을 의무화하는 현장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론과 실무지식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양성한 결과 최근 5년간 석사 24명, 박사 28명 등

총 52명의 고급인력을 배출했다. 이들 중에는 세종대, 중국 광둥해양대·쓰촨농업대를 포함해 국내외 대학 교수로 7명이 임용됐고, 34명이 CJ그룹, 농협사료, 도드람 등 국내외 기업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교수창업도 꽃피워

바이오분야는 인재양성과 더불어 교수창업도 꽃을 피웠다. 5년 전 리보핵산(RNA) 계열의 신약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산학협력단 자회사 (주)알지노믹스(대표 이성욱 교수). KDB산업은행 등으로부터 투자금 609억 원을 유치한 알지노믹스는 글로벌 임상시험을 목표로 간암·뇌종양·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간암 치료제 'RZ-001'의 임상 1·2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 교수는 국내 1상을 마친 후 내년 한국과 미국에서 2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홍근 교수(컴퓨터공학과)는 대학

입주기업 (주)네오펍트의 최고기술경영자를 맡아 뇌졸중, 치매환자 등 신경성 환자의 재활치료플랫폼을 개발해 2018년 코스닥 상장 성공했다. 개발 상품은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2017~2018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다. 단국대는 현재 미래에 개회할 IT·BT분야 8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조직재생공학연구원, 국제적 연구성과 이어서



단국대의 융합연구집단인 조직재생공학연구원(ITREN)이 국가기간연구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는 동시에 수준높은 연구성과를 통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동 연구원은 2021년 선도연구센터(MRC:기초의과학 분야)에 선정됐고 최근 15년간 750여 편의 연구논문 발표, 최근 5년간 영향력 지수가 높은 (IF 10 이상) 연구논문 32편을 발표했다.

의학, 치의학, 자연과학, 공학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동 연구원은 지난 15년간 손상된 조직의 재생 기전을 밝히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고자 연구에 매진해왔다. 특히 영국 UCL대학, 미국 컬럼비아대학·펜실바니아대학·스탠포드대학, 호주

시드니대학, 스페인 IBEC연구소 등 12개 이상의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학생교류를 진행하며 200편 이상의 국제 공동 논문을 발표했다.

2007년 설립된 동 연구원은 2017년 단국대 교직원연구원으로 승격

했으며 중점연구소사업(09년), 글로벌연구실사업(15년),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18년), 중점연구소후속사업(19년), BK21사업단 3단계(12년) 및 4단계(20년), MRC선도연구센터(21년) 등 국가의 중대형사업을 연이어 수행하고 있다.



공공의료분야 국가시험 100% 합격, 교수진 수상도 잇따라

단국대 공공·보건과학대학이 국가시험 100% 합격과 교원의 연이은 장관 표창 수상 등 교육·연구 역량을 한껏 입증했다.

공공·보건과학대학은 지난해 국가시험에서 △임상병리학과(임상병리사 38명) △물리치료학과(물리치료사 38명) △치위생학과(치과위생사 44명) △보건행정학과(병원행정사 48명) 등 응시자 253명 전원이 분야별 시험에서 합격했다. 특히 각 분

야별 전국평균 합격률이 70~80%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교육성과다.

장종화(치위생학과)·정효정(바이오헬스융합학부) 교수의 장관 표창 수상 소식도 이어졌다. 장종화 교수는 최근 3년간 천안시의 지역사회 프로그램 책임자로 활동하며 지역민과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효정 교수도 단국대 바이오헬스분야 혁신공유대학사



장종화 교수 정효정 교수

업단에서 마이크로러닝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바이오텔러 연구원들

미래차·반도체 등 미래 인력 양성 위한 투자 확대

단국대학교 한국을 미래에 앞당길 바이오융합, 수소, 차세대산 등 미래산업 및 신산업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기계공학계 중장기 전략사업인 바이오융합사업은 올해 정부사업에 17억 원을 추가하여 대학별 자동차 개발-제작에 필요한 연구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센서, 시뮬레이션, 첨단 배터리는 관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산업계가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에 관심을 보인다. 조수익 교수팀이 주관하는 1세대와 2세대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될 차세대-대형차량 교육용 자동차 개발도 추진 중이다.



바이오융합을 통해 바이오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단국대 연구원들

반도체는 단국대 미래의 핵심 분야로, 융합반도체연구원의 지원을 통해 연구에 적극 지원, 공과 대학 특색 반영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단국대 반도체 연구원은 반도체 제조공정, 반도체 패키징, 반도체 테스트 등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단국대 반도체 연구원은 반도체 제조공정, 반도체 패키징, 반도체 테스트 등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바이오융합을 위한 투자 확대, 단국대 연구원들, 바이오융합을 통해 바이오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단국대 연구원들, 바이오융합을 통해 바이오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단국대 연구원들

단국대 연구원들, 바이오융합을 통해 바이오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단국대 연구원들, 바이오융합을 통해 바이오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단국대 연구원들

단국대 연구원들, 바이오융합을 통해 바이오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단국대 연구원들, 바이오융합을 통해 바이오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단국대 연구원들



단국대 캠퍼스 풍경

[조선일보]

東亞日報
단국대, 미래차·반도체·바이오융합 등 미래산업 인재 키운다

자율주행SW 국가지원사업 선정 국가계정 바탕으로 석·박사 육성 내년엔 융합반도체공학전공 신설

단국대가 대학자율성과 바이오, 바이오융합 등 미래 산업에 인재 양성을 집중하고 있다. 10일 단국대에 따르면 조국정 기획경제부총리 겸 국무총리 직속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 사업' 등 국가지원 사업에 선정돼 예산 18억 원을 확보했다. 조 교수는 "예산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미래자동차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국대는 이를 포함한 국가계정 지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융합정보, 신소재공학, 스웨덴어 등 분야에 30여 명의 석·박사급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또 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융합반도체공학전공(2020년)을 신설해 14명부터 반도체 소재, 재료, 공진, 회로 설계, 신뢰성 평가 등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상성전자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 10여 명을 신학원학과수로 총칭해 공학연구팀을 편성했다.

바이오융합 분야에 인재 양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단국대는 지난해 국책사업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용대학 사업' 주관 대학에 편입된 단국대는 올해 1년차 성과 평가에서 사업 실적 56개 대학 중 한국 1위에 올랐다. 혁신공용대학사업은 정부차 2000여명에서 5000여 명을 투입해 바이오융합 분야에 총 8대 신산업 분야에 인재 10만 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단국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며 유망직업인사 양성사업 등 85개에 바이오융합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대학 학생들도 강화할 수 있는 데다 지금까지 학생 4000여 명이 관련 강의를 이수했다. 이 사업은 화학, 지화학, 약학, 산호초 등 생명과학분야에서 축적된 임상역량 등에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자원학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도 눈에 띈다. 동물자원학연구소 '두산(2018년) 사업' 팀이 최근 1년간 발표된 과학기술논문정보서비스(KCI)급 논문은 360편이다. 사업담당인 윤인호 동물자원학과 교수는 "최근 1년간 KCI급 논문 350편을 발표하고 각종 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KCI급 사업에 참여한 석·박사 10명 중 7명이 제1저자와 중국 관련영역에 참여하고도 2017년까지 총 350여 원의 연구비 생분공학 및 미래산업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신학원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단국대 연구원들, 바이오융합을 통해 바이오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단국대 연구원들, 바이오융합을 통해 바이오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단국대 연구원들

김수복 단국대 총장은 "앞으로도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교육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교육혁신을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실용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kjdonga.com

[동아일보]

한국일보
단국대, 헝가리서 '한국어말하기대회' 연다

ELTE대학 대학생 300명 경연 5명 선발해 한국 유학 기회 제공

단국대 김수복 총장이 한글날을 기념해 10일(현지시간) 헝가리 최고 국립대학인 ELTE대학에서 '단국대학교 중장비 한국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ELTE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과 세종학당 학생 등 한국어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3회 개최 후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었다.

이번 한국어말하기대회의 주제는 '나를 소개하는 한국어'이다. 참가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음식, 한국어 역사, K팝 등을 주제로 개인 발표와 함께 시·가·시조로 관련주도 발표할 예정이다. 단국대는 참가자 중 5명을 선발해 한국 유학의 기회도 제공한다. 수상자에게는 순위가 따라 단기연수 및 정규학기 1년(또는 1개 학기), 기숙사 및 왕복항공료 무상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수복 총장은 "2015년부터 세 차례 한국어말하기대회를 열어 유럽 내 한류 확산과 한·헝가리 간 문화교류 증진을 기여해왔다"며 "한국기업의 헝가리 진출 촉진을 위한 한국어 강사 파견과 교육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경진 기자 kjdonga.com

[한국일보]

東亞日報
단국대, 헝가리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연다

10일 K팝 등 주제로 300여명 참가 5명 선발해 단기연수 등 유학기회 김수복 총장 스페인서 시 낭송도

단국대가 한글날(9일)을 맞아 10일(현지 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립 외트보시모란드에서 '단국대 총장배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언어와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해 한·헝가리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취지로 2015년 시작했다. '나를 소개하는 한국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외트보시모란드 한국어학과 세종학당 학생 등 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음식과 역사 △K팝 등과 관련된 내용을 개인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자 중 5명을 선발해 단국대 단기연수 등 유학 기회를 제공한다.

단국대는 그동안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과대 외트보시모란드대, 제멜라이스 의대, 페치대와 교류하며 교수진을 파견하고 현지 한국어 강화를 지원했다. 2014, 2018년에는 한국 정몽준과 다고 5일 밝혔다. 2014, 2018년에는 한국 정몽준과 다고 5일 밝혔다. 2014, 2018년에는 한국 정몽준과 다고 5일 밝혔다.

단국대 총장은 "유럽에서 한류 확산과 한·헝가리 간 문화 교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어 강사를 파견하고 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kjdonga.com

[동아일보]

3년만에 열린 총동창회 송년의밤

동문 700여 명 화합·우의 다져

단국대 총동창회가 동문 사회의 축하와 격려 속에 3년 만에 열린 송년의 밤 행사를 성대히 마쳤다. 700여 동문을 초청,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2 단국대 총동창회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고정용 동문(㈜아이젠파마코리아 대표이사), 장세현 동문(동국건설)이 올해를 빛낸 「자랑스러운 단국인」에 선정됐다. 고정용 동문은 경제학과 77학번으로 (주)

한미약품 부사장을 역임하고 2013년 (주)아이젠파마코리아를 창립해 난임치료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제3세계 국가에 학교와 직업훈련원을 설립하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장세현 동문은 재료공학과 86학번으로 2001년 동국건설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철근콘크리트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로 성장시켰고 2021년 철근콘크리트공사협회 회장직에 선임되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홈커밍데이 스타트

동문 화합의 장 마련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학과별 홈커밍데이 행사가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홈커밍데이에 참석한 동문들은 오랜만에 만난 선배들과 우의를 다지고 대학 및 학과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는 16개 학과가 각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화합을 다졌고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금 2억 5백만 원도 조성했다.



정치외교학과는 120여 명의 동문 및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었다. 정치외교학과는 홈커밍데이를 통해 4천 5백만 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어 눈길을 끌었고 매년 지속적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해 학과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간호대학 총동문회가 학과 설립 30주년을 맞아 동문들을 초청, 홈커밍데이를 개최하고 대학발전에 서달라며 8천 3백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했다. 간호대학 총동문회가 모교에 기부한 발전기금은 현재까지 2억여 원에 달한다.

의대 9기 동문들이 졸업 2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모교를 방문한 의대 9기 동문들은 5천 6백만 원의 기금을 모아 김수복 총장에게 전하며 "선진 교육환경 구축에 서달라"고 당부했고, 김수복 총장은 "후배들을 위해 고귀한 뜻을 보여준 선배들의 선행에 재학생들이 큰 힘을 얻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캠퍼스	단과대학	학과/전공	일시
죽전	경영경제대학	경제학과	2022.11.26.(토)
		과학교육과	2022.10.09.(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2022.11.12.(토)
		특수교육과	2022.09.24.(토)
천안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022.09.24.(토)
	SW융합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부	2022.11.05.(토)
		정보통계학과	2022.11.25.(금)
천안	간호대학	간호학과	2022.11.09.(수)
	과학기술대학	수학과	2022.11.19.(토)
	공공·보건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2022.11.30.(수)
	생명공학대학	녹지조경학전공	2022.11.18.(금)
	스포츠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2022.10.31.(월)
		스포츠경영학과	2022.11.26.(토)
		운동처방재활전공	2022.11.11.(금)
	예술대학	문예창작과	2022.10.29.(토)
	의과대학	의학과	2022.10.29.(토)



3년만에 재개된 해외봉사 활동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전해진 '진리·봉사'

● 해외 봉사활동 횟수



동계 방학을 맞아 단국대 죽전캠퍼스·천안캠퍼스 사회봉사단이 진리·봉사 교시를 전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죽전 사회봉사단 34명은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의 따뚝초등학교를 찾아 미술, 음악, 체육,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육 봉

사를 진행했다. 봉사단은 건물 지붕이 노후화되어 비가 오면 물이 새 학생들이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붕 교체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봉사단은 교육 봉사 외에도 여가시간을 활용해 △K-POP과 전통 소고춤 공연 △벽화봉사 △다일공동체(NGO 단체) 급식 봉사 및 환경정화 등도 진행했다.

천안 사회봉사단 30명도 1월 7일부터 1월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의 '당티란 초등학교'를 찾아 한국어, 과학, 미술, 체육 등 교육 봉사와 함께 시설물을 개보수 봉사를 진행했다.

천안 사회봉사단의 그동안 미안마 지역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나 올해에는 군부 쿠데타등의 현지 사정으로 베트남을 찾아 봉사를 펼쳤다. 봉사단은 학생들을 위한 비 가림막 설치, 체육시설 보수, 학교 담장 도색 등의 환경개선 봉사를 펼쳤고 마지막 날에는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 대학생들과 베트남의 문화, 예절, 전통놀이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2007년 창단한 양캠퍼스 사회봉사단은 현재까지 △캄보디아(15회) △몽골(14회) △네팔(7회) △미얀마(6회) △라오스(5회) △베트남(2회) △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각 1회) 등 53회에 걸쳐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



단국대병원, 210만 충남도민 책임지는 '지역암센터' 선정



단국대병원(병원장 이명용)이 보건복지부 주관 '충남 지역암센터'에 선정되어 210만 충남도민의 암 건강 증진을 위한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게 됐다. 또한 '권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에도 선정돼 충남도 암생존자의 건강관리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도 함께 수행하게 됐다.

지역암센터는 암 환자의 높은 서울 의존도와 첨단장비 분포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에서 주민에 대한 암치료, 암연구 뿐만 아니라 암예방, 암검진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암과 관련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2004년부터 전북, 광주·전남, 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권역에 지역암센터가 지정되었고 충남 지역은 미지정 권역이었다.

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암센터 사업비 연 3억(국비 1억, 지방비 1억, 병원부담금 1억), 권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사업비 연 2억(국비 1억, 지방비 1억) 등 총 연간 4억여 원을 지원받아 △충남 지역 암환자의 접근성 개선 △지역 내 암진료 및 지역 간 암진료 격차 해소 △암생존자(암으로 진단된 후 적극적인 암치료를 마친 암환자)의

건강관리 및 사회복귀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단국대병원은 암의 진단에서부터 수술, 추적관리, 예방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암센터를 지난 2022년 4월에 개원했다. 충남 지역 최대 규모의 단국대병원 암센터는 250병상 규모에 총면적 30,393.5㎡, 지하 2층, 지상 8층의 최첨단 독립 건물로 지어졌다. 건축비와 장비구축비 등 총 840억여 원이 투입됐다.

김수복 총장은 "충남 지역 내 암환자들이 서울과 수도권권의 대형병원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암환자에게 보다 편안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지역암센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존경받고 사랑받는 충남 최고의 의료 인프라로 성장해 달라"고 격려했다.



박재형·이승기 교수, 반도체공정분야 기술이전

단국대 죽전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지난 10월 29일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차세대 센서 전문기업 (주)엠엔텍에 기술이전했다. 이기술은 박재형·이승기 교수(전자전기공학부)의 '기판 관통 구조물 및 이의 제조방법'과 '기판 관통 구조물을 포함하는 소자의 패키지 기술'. 국내 및 미국 특허를 받은 이 기술의 기술이전료는 1억 원이다. 기술이 적용될 경우 반도체 제작 시 반도체 신호의 손실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고, 소자의 제작 단가 인하 및 전체 구조물의 크

기도 절반 가까이 감소시킬 수 있다. 기술을 이전받는 (주)엠엔텍 정승환 부사장은 "단국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글라스 재플림(리플로우) 공정을 통한 기판 관통 구조물을 개발해 반도체 시장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투자 계획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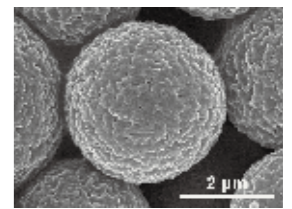


이병선 교수팀, 이차전지 수명과 성능 높은 음극재 개발



이병선 교수팀(파이버융합소재공학전공)이 기존 음극재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된 하드카본 계열의 탄소 음극재를 개발했다. 이차전지 구성 요소인 음극재는 통상 흑연과 실리콘이 사용된다. 흑연은 에너지 저장 용량이 낮고 급속 충전시 화재 원인이 되며 실리콘은 충·방전을 반복할 경우 부피 변화로 수명이 크게 단축된다. 연구팀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

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와 공동 연구를 통해 양극재에서 활용되는 구(球) 형태의 마이크로 이차입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존보다 출력과 수명이 늘어난 음극재 개발에 성공했다. 새로 개발한 음극재는 고속충전 시(18분 기준) 배터리 용량의 78%까지 충전되며 500회 이상 충·방전을 반복해도 초기 배터리 용량의 84%를 유지하는 등 기존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한문교육연구소, 고문헌 속 한자 90% 인식 인공지능 개발

단국대 한문교육연구소(소장 김우정 교수)와 자율형블록체인융합연구소(소장 박용범 교수)는 고문헌에 표기된 흘림체 글자 등 복잡한 한자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한자를 자동으로 분할하고 인식하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3억 자 이상의 한자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고 전체 한자의 90% 이상을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로 조선왕조실록, 일성록(日省錄), 개인 문집류 등 고문헌의 한자를 지금보다 좀 더 빠르게 확인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이 프로젝트는 한문교육연구소의 '한국 역대 한자 자형 사전(字典) 데이터베이스 구

축 및 활용' 과제로 수행됐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금 10억 5천만 원이 투입됐다.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해 자율형블록체인융합연구소가 한자 자형 분할·추론 모델을 개발했고 부설 동양학연구원이 세계 최대 규모 사전인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의 자형 정보를 제공했다.



2027 하계U대회 국내유치, 천안캠퍼스 등 충청권서 치러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기념 사진(왼쪽 네번째 장호성 이사장)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가 대전·세종·충남북도 등 충청권서 열린다. 11월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 투표에서 충청권 4개 시도가 예상 외의 선전을 펼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를 14대 7로 누르고 대회 개최권을 당당히 따냈다. 국내에서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은 무주(1997), 대구(2003), 광주(2015)에 이어 네 번째이며 충청권에선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150여 국가의 1만 5천여 명이 참석하는 스포츠 빅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교법인 단국대학 장호성 이사장은 아시아대학스포츠연맹(AUSF) 부회장 당시 인연을 맺었던 FISU 집행위원들을 현장에서 일일이 찾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한국 유치 타당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호소해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특히 한국대학스포츠위원회 상임위원(2001), 이탈리아 동계유니버시아드 단장(2003), 오스트리아 동계유니버시아드 단장(2005), 아시아대학스포츠연맹 부위원장(2010), 중국 하계유니버시아드 단장(2011) 등을 역임하며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취지와 운영, 지향점을 분석한 바 있어 세부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장 이사장은 스포츠전문지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충청권 유니버시아드는 중앙정부와 4개 지자체가 대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보장하고 지역 대학의 경기장 인프라를 대부분 활용하도록 계획했다”며 “대회 유치를 위한 경쟁이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홍보해 세계 젊은이들의 스포츠잔치인 유니버시아드가 국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회 중 단국대 천안캠퍼스 체육관도 공식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대학 소속 체육선수들의 대회 출전도 좋을 이을 전망이다. 대회 유치단은 인터뷰를 통해 “개발도상국 참가선수에게는 참가비용을 일부 제공하고 모든 참가국의 안전하고 원활한 출입국을 지원하는 등 열린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단국스포츠, 날아오르다

2022년 단국 스포츠 결산

김예림, 생애 첫 그랑프리 우승 “포스트 김연아 선두주자로”

‘피겨 장군’ 김예림이 11월 19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5차 NHK 트로피에서 최종 총점 204.49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선수가 시니어 그랑프리 금메달을 따낸 건 지난 2009년 김연아 이후 13년 만이다.



대학축구 정상에 서다 “U리그 왕중왕전 우승”

단국대 축구부(감독 박종관)가 11월 16일 오후 2시 경북 김천대 운동장에서 열린 ‘2022 대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홈팀 김천대를 4대 0로 완파해 U리그 1부 우승을 차지하며 대학축구 정상에 올랐다. U리그에서는 2009년 우승 이후 13년 만의 우승컵이다.



동계유니버시아드 메달 향연 [금3, 은2, 동2]



1,5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김건희 양 (왼쪽 첫 번째, 사진 대한체육회 제공)



1,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김태성 군 (가운데, 사진 대한체육회 제공)

1월 23일 폐막한 제31회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동계유니버시아드, 미국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에서 단국대 빙상부가 모두 일곱 개의 메달을 따내며 이번 대회 종합 2위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특히 쇼트트랙에서는 김태성이 쇼트트랙 남자 1,500미터 / 남자 5,000미터 계주에서 우승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고 김건희, 김찬서 역시 여자 3,000미터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스포츠단국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여자 피겨 싱글부문에서 김예림이 한국 최초의 메달리스트(동메달)가 되어 언론에 크게 소개되기도 했다.

김수복 총장 스페인·헝가리 자매대학 방문, '한류 및 글로벌 교육인프라 구축 기반 다져'

김수복 총장이 지난 10월 스페인과 헝가리의 자매대학을 연이어 방문해 국제교류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한국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유럽 내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김 총장은 "이번 유럽 방문을 계기로 스페인과 헝가리의 한류·한국어 확산의 계기를 다졌고 자매대학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우리 대학이 글로벌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앞장서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마드리드국립대와 의학·반도체 등 교류협력 논의



마드리드국립대를 방문한 김수복 총장(왼쪽 세 번째)과 마리아 콘셉시온 가르시아 고메스 마드리드국립대 부총장(왼쪽 네 번째)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를 방문한 김 총장은 상호 강점을 지닌 학문분야의 교류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타진하고 학생교류 등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 총장은 "의학과 반도체 등 단국대의 강점을 마드리드국립대와 공유하고 역동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마리아 콘셉시온 가르시아 고메스 마드리드국립대 부총장도 "한국의 역동적인 발전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단국대와의 학술·문화교류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살라망카대와 대학원생 교류 협약, 특별강연·시 낭송도 가져

자매대학인 스페인 살라망카대에서는 리카르도 리베로 오르떼가 총장을 예방하고 기존의 학부생 교류 외에 대학원생까지 교류를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1218년에 설립된 살라망카대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역사가 오래된 대학이다. 김 총장은 협약 체결 후 이 대학의 한국문화주간을 기념해 '언어가 빛이 되다'를 주제로 특별강연과 시 낭송회도 진행했다. 김 총장은 상상력의 원천과 구체성, 사리진 시원과 근원을 찾아가는 시 창작의 즐거움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스페인의 국민시인으로 칭송받는 안토니오 콜리나스(Antonio Colinas)와 함께 시를 낭송했다.



김수복 총장(오른쪽)이 리카르도 리베로 오르떼가 살라망카대 총장(왼쪽)과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엘떼대에서 '단국대 총장배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



한국어말하기대회 참가자 기념촬영

헝가리로 이동한 김 총장은 한류 및 한국어 확산을 위해 자매대학 엘떼대(ELTE)에서 '2022년 단국대학교 총장배 한국어말하기대회'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엘떼대 한국학과 및 세종학당 학생 70여 명이 참여했고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4명이 '나를 설레게 하는 한국'을 주제로 열린 경쟁

을 펼쳤다. 김 총장은 "단국대는 2015년부터 네 차례 한국어말하기대회를 열어 한류 확산과 한-헝가리 간 문화교류 증진에 의미있게 기여해 왔다"라며 "한국기업의 헝가리 진출 증가에 맞춰 한국어교강사 파견과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어말하기대회 축사 중 한글날을 기념하여 시를 낭송하는 김수복 총장



이정환 교수,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KAST) 회원 선출



이정환 교수(치의예과)가 단국대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이하 Y-KAST) 의약학부 분야 회원으로 선출됐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최고 석학기관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 12월 13일 과학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발표하며 두각을 나타낸 젊은 과학자 26인을 '2023년도 Y-KAST 회원'으로 선출했다.

이 교수는 생체재료학 분야의 떠오르는 신진 연구자로 재생용 이식 생체재료 개발 및 재생 메커니즘을 규명했으며 나노(Nano)입자와 메카노(Mechano)인자를 조절한 생체재료의 개발 및 조직재생 적용에 관한 연구로 생체재료 분야 저명 학술지인 'Biomaterials'에 9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며 그 우수성을 검증받았다.

단국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2018년 단국대에 부임한 이 교수는 조직재생공학연구원 덴탈메디슨 조직재생센터 센터장, 기초의과학분야(MRC) 메카노바이올로지 치의학 연구센터 부센터장, BK21+ 나노바이오 재생의과학 글로벌 연구단장을 맡고 있으며 생체재료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임상적 활용가능성을 탐색하는 기초 치의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단국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2018년 단국대에 부임한 이 교수는 조직재생공학연구원 덴탈메디슨 조직재생센터 센터장, 기초의과학분야(MRC) 메카노바이올로지 치의학 연구센터 부센터장, BK21+ 나노바이오 재생의과학 글로벌 연구단장을 맡고 있으며 생체재료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임상적 활용가능성을 탐색하는 기초 치의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미지 교수, '김윤식학술상' 첫 수상자에 선정

한국문학의 대가이자 국문학계 큰 스승으로 평가받는 고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의 학문업적을 기리고자 제정된 '제1회 김윤식학술상'에 김미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저서 『한국 근대문학, 횡단의 상상』(소명출판, 2021)이 선정됐다.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한·중·일 세 나라 근대문학의 '경험, 실천, 실험'을 엮어 살펴 우리 근대문학의 형성과 전개를 이끈 큰 힘의 하나인 '횡단의 상상'을 정치하게 논한 수준높은 연구서"라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일제 강점기 한·중·일이 각기 맞닥뜨린 조건들은 다양한 형태로 얽혀 있고, 당대를 살아간 문학인들의 치열한 읽기와 쓰기, 언어적 실험의 여정은 국경선에 제약받지 않은 소위 문화적 이동과 횡단을 통해 산출된 글쓰기"였다며 “동아시아 삼국 간의 비교문학 또는 세계문학과의 교류 관점에서 폭넓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중국 북경대 한국어문화과에서 연구와 강의를 맡았고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로 활동하다 2019년 단국대에 부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문학 비교, 소설 언어와 번역, 서양문화와 한국문학의 상호 관계 등이다.

PEOPLE

현정근 교수, 척수손상 재활 앞당겨 '의료기기산업대상' 대상 수상



현정근 교수(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가 심각한 신경 손상 환자의 재활을 돕는 인공신경 도관을 개발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최한 제7회 의료기기산업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개발된 구조체만으로 신경 재생 기능이 가능해 이를 통해 말초신경 재생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도 마련했다.

현 교수는 “재활의학과 의사로 진료하면서 불의의 사고로 평생 마비와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하는 척수손상 환자들을 보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신경 재생을 촉진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 교수는 대상 수상에 따라 상금 2천만 원도 받았다.

단국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를 겸임하는 현 교수는 2004년 단국대에 부임 후 근골격계 재활, 줄기세포 이식 및 생체재료 응용, 척수손상을 비롯한 중추신경계 손상과 말초신경 손상 분야,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측모델 개발 분야 등의 연구를 해오고 있다.

단국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를 겸임하는 현 교수는 2004년 단국대에 부임 후 근골격계 재활, 줄기세포 이식 및 생체재료 응용, 척수손상을 비롯한 중추신경계 손상과 말초신경 손상 분야,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측모델 개발 분야 등의 연구를 해오고 있다.

분쟁해결연구센터,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연구기관' 재선정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센터장 가상준)가 지난 12월 정부조직인 국무조정실 산하 '갈등관리 연구기관(2023~2025)'에 또다시 선정됐다. 공공분야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 교육 및 대안제시 능력을 인정받아 2014년, 2019년(사업기간 2014~2018, 2019~2022)에 이어 세 번 연속 선정된 것이다. 연구센터는 앞으로 3년간 국무조정실과 함께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공무원 교육에도 나선다.



가상준 교수

연구센터는 △대구시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2016) △공공기관 갈등관리 지원사업(2017) △국립연천충원 조성사업 갈등영향분석(2020) △온종일 돌봄정책 추진 갈등영향분석 연구(2021) 등 현재까지 민간군을 아우르는 다양한 갈등관리 솔루션과 교육을 제시해왔다. 최근에는 서울시 중구의 층간소음·주차 분쟁 해결을 위한 '중구형 갈등관리 체계' 기반 조성과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

2001년 단국대 부설연구소로 문을 연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개소 이후 1,000여 건이 넘는 공공갈등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력을 검증받아 △갈등관리 코칭·컨설팅 △갈등관리 교육(이상 연평균 20회 이상) △갈등영향 분석(연평균 5회 이상) △갈등관리 연구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재학생홍보콘텐츠공모전 성료, “학생 시선으로 표현된 아름다운 대학”

단국대 미디어콘텐츠홍보처(처장 남재걸)가 진행한 「2022년 재학생홍보콘텐츠공모전」이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다. △단국인 자부심 고양 △애교심과 단결력 제고 할 콘텐츠 제작 △학생 눈높이에 맞는 홍보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우리 대학을 홍보할 다양한 학생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8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

우수상



단국대, 별거 있어?
영미인문학과 이연정 외 1명



WE LOVE DKU
커뮤니케이션학부 최지환



장려상



단대 천궐, 한술에 소개
식량생명공학전공 외 1명



함께해 단국
생활체육학과 김량호 외 4명



FIND YOU
경영학부 박태희 외 1명



국제스포츠학부 태권도전공 vlog
태권도전공 박지희 외 3명



PLAY YOUR DKU
커뮤니케이션학부 이소형 외 3명



나와 전통예술의 인연
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과 양쯔한



※ QR코드를 스캔하면 홍보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13명·CPA 7명·관세사 6명 합격



단국대가 2022년 제59회 세무사 시험에서 13명의 합격자를, 제57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7명의 합격자를, 제39회 관세사 시험에서 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세무사 시험 합격자는 △황석진·이재철(회계학전공 4년) △선종만(국제경영학 4년) △장연지(회계학전공 2022년 졸업) △조성완(스페인어과 2021년 졸업) △조홍제(경영학부 2020년 졸업) △이자임(중어중문학과)·이경리(사학과, 이상 2017년 졸업) △이형구

(커뮤니케이션학부)·최정은(회계학전공)·송준호(수학과, 이상 2016년 졸업) △이종태(경영학부 2013년 졸업) 등 13명이다. 관세사 합격자는 △김유진(무역학과 2018년 졸업) △박지인(경영학부 3년) △서채광(중동학과 2021년 졸업) △이진석(무역학과 4년) △임정용(무역학과 2020년 졸업) △장한별(행정학과 2016년 졸업) 등 6명이다.

단국대는 회계사 및 세무사시험을 준비하는 고시반 ‘단현재’와 관세사 준비생을 위한 지원반 ‘관무재’ 운영을 통해 장학금 및 기숙사 지원, 모의고사 시행과 현업전문간담회 등 다양하게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올해까지 215명의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했다.

단현재 고시반 지도교수인 손성진 교수(경영학부 회계학전공)는 “회계사, 세무사 동문회와 연계한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과 멘토링 등으로 각종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라며 “미래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과 도전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서연 양 “해외전시회서 중기제품 110만 달러 수출”

박서연 양(무역학과 3년)이 단국대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기양성사업단(GTEP)의 일원으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두바이 제과 전시회(SM MIDDLE EAST 2022)’에 참가해 중기제품 110만 달러 수출의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박 양은 충남 금산에 소재한 중소기업 ㈜아침마당에서 제조한 홍삼 제품을 이란 기업에 100만 달러, 쿠웨이트 유통 기업에 10만 달러 등 모두 110만 달러의 제품을 판매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홍삼의 맛과 효능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 설명과 시음, 부스 운영, 상담 활동 등 1인 다 역을 펼쳤다. 특히 구매 욕구와 최소 주문 수량,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관세 절감 전략 등 바이어가 제품 구매 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면밀히 공부해 전시 현장에서 좋은 결과를 맺었다고 자평했다.

박 양이 소속된 단국대 GTEP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아 2009년부터 14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사업단 중 3위 이내의 최우수사업단으로 평가 받고 있다. 단원으로 활동하는 재학생들은 해외 마케팅, 해외 전시, 국내·외 인터십 등 무역실무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

2022년 발전기금 기부 총액 41억여 원

동문 기부 크게 늘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대학 발전기금 모금 총액은 41억여 원입니다.
 총 2,600명의 후원자께서 대학을 위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모금 총액 41억여 원은 지난 2021년 28억 4천만 원 대비 44% 증가한 금액으로
 많은 후원자님들이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입니다.

일반발전기금



참여자 수 : 1,440명

2022년 대(大)단(檀)한 단대를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캠페인 '대단한기부'에 154명의 후원자께서 새로이 5억여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대학발전을 위한 후원에 동참해 주셨으며 14명의 후원자께서 학생들을 위한 수업 기자재와 교육물품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지정발전기금



참여자 수 : 702명

후원자께서 용도를 특정하여 기부하시는 지정발전기금에 많은 학과(전공), 연구소, 행정부서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학과발전을 기원하는 동문님들의 후원이 늘었으며 우리 대학 연구력 향상을 위한 지정발전기금이 답지했습니다. 또한 많은 동문님들이 홈커밍데이에 참여해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금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장학발전기금



참여자 수 : 458명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고자 각 학과 동문회와 기업, 단체, 개인 후원이 답지했습니다. 학과 및 대학원 동문들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해 주셨으며 다양한 장학재단과 기업들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체육부총동문회 전달식



▲ 직원노조 장학금 전달식



▲ 다이코리아 전달식



▲ 범은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함께 동행하는 사랑, '후원의 집 장학금' 전달식 가져

대학 주변 업체들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캠페인 '단국사랑 후원의 집' 장학금 1천만 원이 10명의 재학생에게 전달됐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업체들이 뜻을 모아 장학금을 조성해 더욱 의미를 깊게 했다. 박성순 대외협력처장은 "후원의 집은 십시일반으로 기부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만큼 학생들도 상생의 뜻을 이어받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며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정란 석좌교수, 1억 원 쾌척

정란 석좌교수(건축학전공)가 장학금 1억 원을 쾌척했다. 기부한 금액은 학부와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란 교수는 재직 중 2억여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고, 이번 쾌척으로 총 3억여 원의 거액을 대학발전과 제자육성을 위해 조성하였다. 한편 정 교수는 퇴임 후에도 수년간 다양한 연구를 기획, 추진하며 연구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치과대학동창회, 후배 사랑 노트북 99대 기증

치과대학동창회(회장 홍준석)가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 지원에 나섰다. 올해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이 컴퓨터시험(CBT)으로 변경되면서 후배들이 시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트북을 기부한 것. 홍준석 동창회장은 "자랑스러운 후배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자농구부 후원회, 7,100만 원 후원

우리 대학 여자농구부 동문, 학부모, 후원기업 등으로 구성된 여자농구부 후원회에서 발전기금 7,1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한 금액은 여자농구부의 경기력 향상과 훈련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여자농구부는 최근 △MBC배 대학농구대회 우승(2021) △U-리그 여자대학부 우승(2021, 2022)을 차지하며 대학부 최강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DANKOOK DEVELOPMENT FUND

아래 기부자는 2022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전기금을 새롭게 약정하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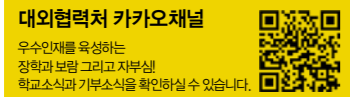
발전기금 기부안내

http://dkufund.dankook.ac.kr

대외협력처

[죽전] 031-8005-2037~8
[천안] 041-550-1820
메일 : fund@dankook.ac.kr
우리는행 1006-401-240655
국민은행 390437-04-001322
(예금주 : 단국대학교)

대외협력처 카카오톡 QR코드



단국대학교는 후원자님께 다양한 대학 소식을 제공하고자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억 원 이상

- 정란(석좌교수)
- 5천만 원 이상**
- (재)범은장학재단
- 여자농구부후원회(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경영학과)
- 천안농업협동조합
- 3천만 원 이상**
- 다이킨코리아(주)
- 재단법인 우덕재단
- 피피지코리아(PPG KOREA)
- 한국대학농구연맹
- 1천만 원 이상**
- (재단)문장학회
- 김종관(법학과 84학번)
- 대열보일러
- 대한축구협회
- 박정인(의학과 98학번)
- 신석주(화학공학과 75학번)
- 신흥연승술술재단
- 오동근(무역학과 88학번)
- 오재인(경영경제대학 경영학과)
- 우리용인새마을금고
- 우시무엘(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 음천모빌이식의원(원장 현상윤)
- 유주원(전산통계학과 87학번)
- 이영림(공공 보건과학대학 심리치료학과)
- 이해형(치과대학 치의예과)
- 재단법인 보건장학회
- 조갈남(정치외교학과 84학번)
- 주식회사 이지바이오
- 한시현(간호학과 92학번)
- 5백만 원 이상**
- (주)무신사
- 강유경(간호학과 92학번)
- 건일제약(주)
- 고정문(첨단과학부 95학번)
- 김동민(의학과 96학번)
- 노재영(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부)
- 방요한, 김기욱(정치외교학과 83학번)
-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 염유성(국제스포츠학부 국제스포츠전공 21학번)
- 와이엠씨(주)
- 윤정석(의학과 96학번)
- 의과대학 늘푸름장학회
- 이우결(공과대학 화학공학과)
- 이현숙(간호학과 92학번)
- 이호경(간호학과 92학번)
- 일재호(경영대학원 경영학과 19학번)
- 재단법인 가솔재단
- 조재우(국제스포츠학과 19학번)
- 쥬씨피식스
- 최왕선(경제학과 08학번)
- 한국전력공사
- 한비인수
- 3백만 원 이상**
- (재)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학재단
- (주)디브이파트너즈
- 1251학군단 동문회
- 가나안교회
- 강생장학회
- 강진경(의학과 96학번)
- 권순철(정치외교학과 83학번)
- 김동욱(의학과 96학번)
- 김지선(의학과 96학번)
- 남재결(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 대한씨름협회
- 동국제약(주)
- 박상욱(의학과 96학번)
- 박환범(의학과 96학번)
- 배승영(의학과 96학번)
- 신경철(영어영문학과 79학번)
- 신성아(자유교양대학)
- 심정현(의학과 96학번)
- 엄재열(공업화학학과 99학번)
- 엄태천(미래교육혁신원 미래교육지원2팀)
- 우영솔루션
- 이동호(경영경제대학/경영대학원 교학행정팀)
- 이현택(의학과 96학번)
- 이형철(의학과 96학번)
- 일주정술문화재단
- 장윤정(의학과 96학번)
- 장지석(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경영학과)
- 재단법인하림장학재단
- 조한철(의학과 96학번)

- 주다혜(의학과 96학번)
- 주두식(스포츠과학대학 체육팀)
- 주식회사 에코프로
- 한민지(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
- 허현구(경영경제대학)
- 1백만 원 이상**
- (재)오뚜기합태호재단
- (주)디시알앤씨에이치엔지니어링
- (주)맥스
- (주)바로건설기술
- (주)상우구조엔지니어링
- (주)세진기술
- (주)지우이앤아이
- (주)휴엔바이옴
- 가상준(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 강영미(간호학과 95학번)
- 강미경(정치외교학과 83학번)
- 강상대(예술대학 문예창작과)
- 고정용(경제학과 77학번)
- 국수기행 천안점(후원의 집)
- 권오진(경제학과 91학번)
- 김경수(한문교육과 91학번)
- 김계홍(기계공학과 88학번)
- 김명윤(기계공학과 77학번)
- 김서영(체육교육과 82학번)
- 김선재(경제학과 79학번)
- 김수복(예술대학 문예창작과)
- 김영모(무역학과 88학번)
- 김원호(사범대학 특수교육과)
- 김정연(건축공학과 86학번)
- 김주선(법학과 79학번)
- 김창해(미디어콘텐츠홍보처 홍보팀)
- 김태구(특수교육과 01학번)
- 김현식(치의학과 82학번)
- 김현우
- 김혜진(간호학과 03학번)
- 남궁영(평생교육원 교학행정팀)
- 마창훈(회계학과 87학번)
- 미래의동반자재단
- 민한경(간호학과 92학번)
- 박병광(정치외교학과 87학번)
- 박유진(간호학과 96학번)
- 박인기(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06학번)
- 박재춘(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 박종관(스포츠과학대학 체육팀)
- 박준식(인학처 입학2팀)
- 박지홍(음악·예술대학 공연영화학부)
-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 산고을우리(후원의 집)
- 서원남(과학교육과 87학번)
- 송희승(간호학과 92학번)
- 신부총구단
- 신용관(서어서문학과 84학번)
- 신우식(스포츠과학대학 체육팀)
- 안대원(신학협력단)
- 안순철(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 예코프에이치엔
- 염경호(스포츠과학대학 체육팀)
- 오펜인플란트(주)
- 오주연(간호대학 간호학과)
- 유혜진(간호대학 간호학과)

- 윤서빈(동물자원학과 17학번)
- 윤성준(국제스포츠학과 18학번)
- 윤용호(CS경영센터)
- 윤재영(학생처 장학팀)
- 이두식(법학과 81학번)
- 이미영(회계학과 87학번)
- 이상진(미래융합연구원 연구평가지원팀)
- 이승희(간호대학 간호학과)
- 이애선(정치외교학과 84학번)
- 이영미(간호학과 92학번)
- 이영희(간호학과 96학번)
- 이장규(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 이장희(공공 보건과학대학/정책경영대학원/보건복지대학원 교학행정팀)
- 이정민(법과대학 법학과)
- 이정원(간호학과 95학번)
- 이정원(의학과 97학번)
- 이지희(치의학과 84학번)
- 이명원(무역학과 85학번)
- 이혜성(기획실 법무감사팀)
- 이현수(체육교육과 08학번)
- 이현정(간호학과 94학번)
- 이홍(행정법무대학원 행정학과 89학번)
- 인태영(기학과 92학번)
- 임동택(불어불문학과 84학번)
- 장금석(정치외교학과 83학번)
- 장봉균(스포츠과학대학 체육팀)
- 장승준(과학기술대학 수학과)
- 장원익(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4학번)
- 재단법인 한영장학재단
- 전규연(대외협력처 대외협력1팀)
- 정찬진(경영학과 81학번)
- 정현욱(경영학부 12학번)
- 조해란(간호학과 95학번)
- 주식회사 슈가엔
- 주재형(문과대학 철학과)
- 진윤희(행정법무대학원)
- 최기봉(국어국문학과 80학번)
- 최재길(자유교양대학)
- 최철응(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06학번)
- 한국대학축구연맹
- 한성문화재단연구원
- 한시준(사학과 75학번)
- 홍경표(경영학과 87학번)
- 홍준석(치의학과 84학번)
- 1백만 원 미만**
- (주)CS구조엔지니어링
- (주)가우리안
- (주)광림구조 엔지니어링
- (주)노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주)라이프지노믹스
- (주)비에스티엔지니어링
- (주)에스애프리조안전
- (주)엔자연구소엔지니어링
- (주)연우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 (주)형상엔지니어링
- 가소영(간호학과 94학번)
- 가지혜(미디어콘텐츠홍보처 홍보팀)
- 가지훈(전자전자컴퓨터공학부 01학번)
- 간호대학총동문회
- 김민기(스포츠경영학과 14학번)
- 강동현(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 강문정(간호학과 98학번)
- 강민구(첨단과학부 04학번)
- 강부경(간호학과 15학번)
- 강성은(간호학과 97학번)
- 강수현(간호학과 09학번)
- 강연수(간호학과 15학번)
- 강우정(간호학과 14학번)
- 강은영(특수교육과 00학번)
- 강주현(특수교육과 93학번)
- 강하나(간호학과 11학번)
- 강한재(간호학과 08학번)
- 강홍일(경제학과 79학번)
- 고선규(정치외교학과 85학번)
- 고선영(간호학과 93학번)
- 고숙현(수학과 98학번)
- 고애영(첨단과학부 99학번)
- 고영미(간호학과 15학번)
- 고정민(간호학과 96학번)
- 고정원(스포츠경영학과 17학번)
- 고혜영(간호학과 05학번)
- 구서정(간호학과 10학번)
- 구희경(간호학과 06학번)
- 권세영(스포츠경영학과 16학번)
- 권순백(경제학과 89학번)
- 권오복(체육교육과 97학번)
- 권정성(경제학과 87학번)
- 권준욱(경제학과 12학번)
- 권준(특수교육과 06학번)
- 권진경(간호학과 14학번)
- 권학민(전기공학전공 96학번)
- 권현수(수학과 05학번)
- 기형민(체육교육과 91학번)
- 김경동(문예창작과 02학번)
- 김경민(수학과 12학번)
- 김기애(간호학과 97학번)
- 김길식(체육교육과 97학번)
- 김나윤(응용수학과 12학번)
- 김남인(간호학과 12학번)
- 김남형(간호학과 11학번)
- 김다훈(스포츠경영학과 15학번)
- 김단비(간호학과 15학번)
- 김도경(법학연구소)
- 김도연(간호학과 05학번)
- 김도형(과학기술대학 수학과)
- 김동섭(수학교육과 91학번)
- 김동원(경제학과 85학번)
- 김동훈(수학교육과 97학번)
- 김모윤(간호학과 11학번)
- 김민경(간호학과 12학번)
- 김민영(특수교육과 98학번)
- 김민욱(수학과 11학번)
- 김민정(간호학과 07학번)
- 김민정(간호학과 14학번)
- 김민정(간호학과 13학번)
- 김봉주(경제학전공 94학번)
- 김사강(간호학과 05학번)
- 김새미(첨단과학부 06학번)
- 김석현(첨단과학부 02학번)
- 김선우(상경학부 98학번)
- 김선이(CS경영센터 CS경영팀)

- 김설혜(간호학과 06학번)
- 김성래(경제학과 90학번)
- 김성진(수학과 98학번)
- 김성호(체육교육과 02학번)
- 김성훈(과학교육과 97학번)
- 김성희(간호학과 08학번)
- 김세윤(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경영학과)
- 김세희(간호학과 13학번)
- 김소라(간호학과 07학번)
- 김소연(간호학과 11학번)
- 김수연(간호학과 15학번)
- 김수정(간호학과 11학번)
- 김영교(경제학과 92학번)
- 김영선(스포츠과학대학/스포츠과학대학원 교학행정팀)
- 김영재(전자전기공학부 10학번)
- 김영준(과학교육과 94학번)
- 김예리(간호학과 15학번)
- 김예주(간호학과 14학번)
- 김용택(수학교육과 97학번)
- 김윤수(경제학과 90학번)
- 김은현(간호학과 09학번)
- 김의경(간호학과 06학번)
- 김인수(문경해결연구센터)
- 김장섭(체육교육과 89학번)
- 김정수(특수교육과 96학번)
- 김정순(간호학과 98학번)
- 김정아(간호학과 12학번)
- 김정태(체육교육과 96학번)
- 김종찬(행정법무대학원/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 김주석(간호학과 03학번)
- 김주희(간호학과 97학번)
- 김지영(스포츠경영학과 14학번)
- 김지윤(간호학과 02학번)
- 김지현(간호학과 11학번)
- 김지혜(정치외교학과 08학번)
- 김진(간호학과 14학번)
- 김진우(영어영문학과 09학번)
- 김창현(상경학부 99학번)
- 김초란(간호학과 10학번)
- 김태형(과학교육과 92학번)
- 김필균(체육교육과 95학번)
- 김하영(간호학과 14학번)
- 김한다현(간호학과 08학번)
- 김한신(사학과 92학번)
- 김한정(간호학과 15학번)
- 김현중(간호학과 09학번)
- 김형규(경제학과 89학번)
- 김형근(경제학과 11학번)
- 김형섭(정치외교학과 91학번)
- 김형진(정치외교학과 92학번)
- 김혜인(수학과 17학번)
- 김혜정(간호학과 96학번)
- 나윤하(특수교육과 04학번)
- 남보라(간호학과 11학번)
- 남주성(스포츠경영학과 14학번)
- 노동연(대학원 체육학과 03학번)
- 노성운(과학교육과 88학번)
- 노희주(간호학과 13학번)
- 다원구조엔지니어링
- 대원산업
- 더원과학

도시건설방재기술원(주)
동화과학
두경하(간호학과 14학번)
랩솔루션
류경선(간호학과 95학번)
류성필(수학교육과 97학번)
류주연(간호학과 93학번)
맹희주(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문경택(체육교육과 97학번)
문예창작과 동문회
문혜현(정치외교학과 14학번)
미래에스디지
미지인(테네셔널)
박기림(간호학과 13학번)
박근웅(수학과 81학번)
박영근(경제무역학부 경제학전공 94학번)
박문수(수학과 14학번)
박선미(간호학과 00학번)
박성규(입학처 입학1팀)
박성영(간호학과 11학번)
박성준(도시계획·부동산학부 08학번)
박세미(간호학과 09학번)
박애나(간호학과 14학번)
박예상(간호학과 14학번)
박용석(경제학과 96학번)
박용현(간호학과 06학번)
박유리(간호학과 99학번)
박윤경(수학과 15학번)
박은(자유교양대학)
박의양(상학과 58학번)
박재석(첨단과학부 03학번)
박재영(화학공학과 06학번)
박재천(입학처 입학1팀)
박장범(경제학과 90학번)
박정화(간호학과 98학번)
박주희(과학교육과 96학번)
박지수(간호학과 15학번)
박지현(간호학과 10학번)
박지혜(간호학과 02학번)
박찬영(간호학과 05학번)
박찬형(정치외교학과 92학번)
박찬훈(스포츠경영학과 11학번)
박철규(스포츠경영학과 08학번)
박철재(사범대학 교학행정팀)
박학윤(정치외교학과 84학번)
박학순(경제학과 85학번)
박혜민(간호학과 10학번)
박희제(정치외교학과 81학번)
박희철(과학기술대학 수학과)
반슬기(간호학과 09학번)
배동민(체육교육과 03학번)
배성수(취창업지원처 취창업진로1팀)
백길경(법과대학 교학행정팀)
백승혁(상경학부 98학번)
백지연(간호학과 13학번)
변경원(경영대학원)
변상훈(수학과 15학번)
변찬원(경제통상학부 10학번)
변태식(체육교육과 87학번)
서동훈(스포츠경영학과 13학번)
서문석(경영·경제대학 경제학과)

서미숙(대학원 경제학과 96학번)
서민정(산학협력단)
서애린(간호학과 00학번)
서유진(간호학과 03학번)
서은옥(간호학과 96학번)
서은정(간호학과 97학번)
서혜원(일어일문학과 09학번)
서홍석(체육교육과 01학번)
석민승(간호학과 14학번)
선구조엔지니어링
성경진(스포츠경영학과 16학번)
성두현(미디어콘텐츠홍보처 출판팀)
성은선(간호학과 12학번)
성일재(화학공학과 05학번)
손연아(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손원호(스포츠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손지연(간호학과 10학번)
손태천(과학교육과 82학번)
송덕익(사회과학대학 교학행정팀)
송만호(특수교육과 01학번)
송수민(경제학부 13학번)
송승용(전자공학전공 96학번)
송정환(경제학과 87학번)
신길웅
신민지(간호학과 05학번)
신성민(대외협력처 대외협력2팀)
신소정(간호학과 14학번)
신소희(간호학과 13학번)
신예진(간호학과 15학번)
신정은(체육교육과 06학번)
신철민(체육교육과 94학번)
심상길(과학기술대학 수학과)
심재윤(오피스미트 대표)
심지연(간호학과 95학번)
안선동(농업경제학과 87학번)
안성준(첨단과학부 02학번)
안수현(간호학과 08학번)
안용(간호학과 09학번)
안준석(간호학과 07학번)
안희돈
양경숙(간호학과 97학번)
양경호(상경학부 98학번)
양기몽(체육교육과 95학번)
양아름(간호학과 13학번)
양정주(상경학부 99학번)
양채림(간호학과 18학번)
양희정(수학과 15학번)
에스에프씨(주)
여승수(특수교육과 98학번)
염미현(간호학과 08학번)
오가현(간호학과 14학번)
오다은(간호학과 12학번)
오세영(간호학과 10학번)
오현식(간호학과 13학번)
와이젠바이오
우신혜(간호학과 14학번)
우지은(간호학과 15학번)
원도연(토목환경공학과 08학번)
원하나(간호학과 11학번)
유영일(수학과 83학번)
유재은(간호학과 12학번)

유정혜(간호학과 94학번)
유진석(스포츠경영학과 17학번)
유현지(도시계획·부동산학부 08학번)
유혜란(간호학과 15학번)
육태용(스포츠과학부 97학번)
윤미현(간호학과 14학번)
윤상미(공학부 06학번)
윤영근(정치외교학과 09학번)
윤은정(간호학과 01학번)
윤정숙(간호학과 13학번)
윤종균(정치외교학과 84학번)
윤주연(간호학과 00학번)
윤지연(간호학과 01학번)
윤태근(경제학과 89학번)
윤하나(간호학과 11학번)
윤혜선(공학부 03학번)
이경근(경제학과 91학번)
이경은(간호학과 94학번)
이경호(도시및지역학부 01학번)
이경혜(간호학과 11학번)
이교은(간호학과 12학번)
이기환(수학교육과 97학번)
이길민(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이나영(간호학과 12학번)
이다빈(간호학과 12학번)
이다은(간호학과 12학번)
이명수(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
이미재(간호학과 13학번)
이미연(간호학과 12학번)
이미재(간호학과 01학번)
이미혜(간호학과 97학번)
이상갑(화학공학전공 96학번)
이상덕(과학기술대학 수학과)
이상빈(공학부 00학번)
이상조(경제학과 90학번)
이석(과학교육과 97학번)
이석주(간호학과 10학번)
이선유(간호학과 06학번)
이소민(수학과 17학번)
이소현(스포츠경영학과 17학번)
이수정(간호대학 간호학과)
이수진(간호학과 10학번)
이수진(간호학과 98학번)
이수진(간호학과 99학번)
이슬기(간호학과 08학번)
이승용(체육교육과 02학번)
이아름(간호학과 09학번)
이연주(간호학과 92학번)
이영철(간호학과 14학번)
이윤기(첨단과학부 96학번)
이원규(전기공학과 94학번)
이유림(간호학과 14학번)
이은영(간호학과 10학번)
이자인(다산LINC3.0사업단 사업지원부 진흥팀)
이재윤(간호학과 13학번)
이정식(정치외교학과 82학번)
이정원(간호학과 15학번)
이정환(체육교육과 95학번)
이종욱(경제학전공 91학번)
이종은(간호학과 10학번)
이지민(사학과 17학번)

이지영(간호학과 93학번)
이지윤(간호학과 13학번)
이지현(간호학과 10학번)
이진우(스포츠경영학과 16학번)
이정현(체육교육과 01학번)
이창희(경제학전공 88학번)
이재윤(수학과 17학번)
이철원(스포츠경영학과 14학번)
이충은(화학과 09학번)
이하영(총무처)
이한비(간호학과 14학번)
이한얼(첨단과학부 02학번)
이현선(간호학과 08학번)
이현주(대학생활상담센터)
이현택(간호학과 15학번)
이희선(간호학과 13학번)
이호원(간호학과 12학번)
이효정(간호학과 12학번)
이희정(간호학과 98학번)
임솔(간호학과 05학번)
임이영(간호학과 14학번)
임정길(간호학과 00학번)
임연숙
임은혁(입학처 입학2팀)
임재경(경제학과 06학번)
임재규(수학과 81학번)
임재형(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임정길(특수교육과 12학번)
임지수(공공 보건과학대학/정책경영대학원/보건복지대학원 교학행정팀)
임희재(간호학과 95학번)
장성영(간호학과 97학번)
장소름(체육교육과 02학번)
장수아(간호학과 14학번)
장수연(응용수학전공 06학번)
장인옥(간호학과 02학번)
장정섭(부동산·건설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 14학번)
장창순(체육교육과 89학번)
장형숙(간호학과 93학번)
장희원(간호학과 14학번)
전길송(공학부 05학번)
전소연(간호학과 14학번)
전재범(식품생명공학과 06학번)
전지수(간호학과 00학번)
정경희(간호학과 02학번)
정경희(간호학과 07학번)
정두현(경제학과 84학번)
정민서(간호학과 12학번)
정보라(간호학과 12학번)
정상기
정상용(경제학과 88학번)
정성욱(경제학과 13학번)
정성주(학생처 학생팀)
정성진(간호학과 14학번)
정연희(간호학과 99학번)
정영재(간호학과 08학번)
정예선(간호학과 13학번)
정예슬(기약전공 03학번)
정인준(첨단과학부 04학번)
정재남(경영대학원 글로벌e-SCM학과)
정지혜(간호학과 07학번)
정하은(기계공학과 11학번)

정현수(과학기술타학 수학과)
정혜진(간호학과 13학번)
정효윤(과학기술대학 수학과)
정희재(간호학과 11학번)
조광근(과학교육과 97학번)
조기갑(상경학부 99학번)
조남홍(체육교육과 84학번)
조만식(체육교육과 95학번)
조문희(간호학과 08학번)
조병식(자유교양대학 교학행정2팀)
조복래(경제학과 87학번)
조상우(국어국문학과 87학번)
조상준(경제학과 85학번)
조서희(스포츠경영학과 18학번)
조수민(간호학과 13학번)
조수현(간호학과 13학번)
조아라(간호학과 18학번)
조아해(간호학과 08학번)
조영식(총무인사처)
조용철(마스터수학)
조윤재(간호학과 99학번)
조종철(경제학과 94학번)
조지형(공학부 04학번)
조진택(체육교육과 98학번)
조진휘(간호학과 98학번)
조태빈(수학과 13학번)
조혜련(간호학과 05학번)
조홍식(체육교육과 89학번)
주교영(특수교육과 01학번)
주유라(간호학과 13학번)
주춘자(CS경영센터 CS경영팀)
주혜은(과학교육과 85학번)
지계원(경제학과 88학번)
지상우(경제학과 92학번)
진광민(총무인사처)
차수영(간호학과 10학번)
채정숙(수학과 81학번)
채현이(간호학과 92학번)
최강원(체육교육과 02학번)
최나윤(수학과 12학번)
최명희(간호학과 96학번)
최미진(간호학과 01학번)
최상명(스포츠경영학과 18학번)
최소연(간호학과 13학번)
최영목(정치외교학과 07학번)
최완수(다산LINC3.0사업단 사업지원부 육성팀)
최원희(간호학과 99학번)
최윤정(간호학과 12학번)
최은영(간호학과 97학번)
최자인(간호학과 15학번)
최재원(경제학과 88학번)
최지은(간호학과 13학번)
최진형(문예창작과 12학번)
최태범(정치외교학과 04학번)
최필성(대학원 도시및부동산개발 16학번)
최한솔(특수교육과 04학번)
최효정(간호학과 15학번)
테라젠지능력케어(주)
특수교육과 동문회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하나영(간호학과 04학번)

하이람(간호학과 12학번)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
하준용(첨단과학부 05학번)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규철(체육교육과 11학번)
한기용(수학교육과 95학번)
한민호(첨단과학부 04학번)
한상철(경영대학원)
한송희(간호학과 12학번)
한수경(첨단과학부 00학번)
한예리(간호학과 12학번)
한원희(경제학과 89학번)
한인규(경제학과 85학번)
한재형(수학교육과 97학번)
한주연(간호학과 00학번)
한지희(간호학과 14학번)
한진옥(간호학과 98학번)
함해남(퇴계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
허상(특수교육과 97학번)
홍석현(간호학과 18학번)
홍성두(특수교육과 92학번)
홍정표(교무처 학사팀)
홍정화(간호학과 12학번)
황미애(간호학과 99학번)
황세리(간호학과 97학번)
황수정(간호학과 15학번)
황승순(생활관 행정팀)
황중식(경제학과 85학번)
황준규(경제학과 88학번)
황중호(대학원 경제학과 96학번)
현물
(주)파르마인내셔널
(주)파피리카
네오바이오텍(주)
비엔엘바이오테크(주)
(주)로킵스케어
주식회사 GC케어
차과대학 동창회

보내주신 정성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